

「참좋은교회 45년사」 출간 감사예배 드려 반세기의 역사, 모두가 함께 쓴 믿음의 유산



지난 5월 10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참좋은교회(박용철 목사)는 「참좋은교회 45년사」 출간 감사예배를 내외빈과 성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드렸다.

이번 감사예배는 지난 45년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돌아보며, 다가올 60년과 다음세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예배는 편찬위원장 김중현 장로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한정수 장로의 대표기도와 시온찬양대의 찬양, 교회학교 다음세대의 성경교육이 이어지며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진행되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박용철 담임목사는 사무엘하 7장 12절과 빌립보서 3장 12-14절을 본문으로 「은혜의 45년, 영광의 60년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목사는 “사무엘이 같이 아닌 기도로 승리하며 에베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참좋은교회의 지난 45년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 은혜의 역사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45년사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원로목사의 눈물과 헌신, 장로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이 담긴 “거룩한 기념비”라고 표현하며, “수고한 모든 분들이 참좋은교회의 에베에셀”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제는 지난 은혜를 기억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다음세대를 향한 멈추지 않는 믿음의 걸음으로 60년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박 목사는 IMTC를 통한 선교비전과 ‘1천1만 비전’을 소개하며, 김원교 원로목사가 믿음으로 뿌려 놓은 선교의 씨앗을 함께 꽃피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이어 집필사관과 소감을 전한 배분철 교수는 “교회사 편찬은 단순히 과거의 연대기를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따라가는 영적 여정이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참좋은교회의 역사를 △창립 초기의 개척기 △역곡성전 사대의 성장기 △중동성전이 전 이후의 부흥기 △IMTC를 중심으로 한 선교확장기 △코로나 이후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시기로 정리하며, “참좋은교회도 또 하나의 부흥과 도약의 출발선 위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50년, 60년, 나아가 100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실 것”에 대한 기대와 축복을 전했다.

집필 소감과 감사를 전한 한인옥 박사는 “교회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헌신이 담겨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성전 건축과 함께 성도들의 신앙도 함께 성장해 왔음을 감사하며, 지나온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써 내려가신 은혜의 이야기였음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박용철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갑수 소감을 전한 김상식 박사는 “역사는 기록”이라고 말하며, 이번 45년사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엮어 온 믿음의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책이 다음세대를 세우는 귀한 신앙의 자산이 되어, 참좋은교회가 45년의 은혜를 넘어 60년의 역사로 힘있게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서평을 전한 정상은 박사는 이번 45년사를 “헌신과 선교의 열매가 담긴 책”이라고 평가하며, 참좋은교회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 내려온 교회라고 전했다.

특히 김원교 원로목사의 헌신적인 목양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성도들의 충성된 헌신이 오늘의 참좋은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기초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IMTC 사역은 한국교회와 교인이 본받아야 할 귀한 선교 모델이라며, 앞으로 박용철 담임목사를 통해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이후 편찬위원장과 성도들은 함께 「45년사 봉헌헌언」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랑공동체의 특별한 양이 이어져 큰 은혜와 감동을 더했다.

모든 순서는 김원교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김 원로목사는 “우리 몸에 피가 흐르듯 교회의 역사는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다음세대에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래서 이번 책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붙이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참좋은교회 45년사」 출간 감사예배는 지난 세월 교회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다음세대를 향한 새로운 믿음과 선교의 사명을 다시금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목회 방향 제시 국선위, 목회자를 위한 AI 실전 활용 세미나 개최

국내선교위원회(위원장 위성섭 목사) 목회사역분과가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실전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7일 거룩한씨성동교회(최윤영 목사)에서 개최했으며 2차 세미나는 오는 6월 11일 신원동교회(고신원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회자를 위한 AI 실전 활용 세미나는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를 위한 보조도구로서의 활용법과 교육, 행정, 전도 등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목회사역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 강사는 스피크 AI 교육연구소 소장이자 숭실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마상욱 목사가 진행했다.

이날 강사는 설교 요약 AI 시뮬레이션 △AI 기반 제자훈련 · 상담 실습 △주간 · 월간 사역계획 자동 보고서 작성 등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마상욱 목사는 누구보다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 챗지피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설교에 챗지피티를 활용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란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대와 목회 현실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설교’에 딱 집혀 있습니다. 설교에 챗지피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쟁하면서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목회는 가장

영적인 설교 외에도 비본질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목회의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챗지피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챗지피티로 열린 인공지능의 시대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선위 목회사역분과는 “AI 기술을 목회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교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목회자들이 2026년 이후의 디지털 목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총회성결교신학교 총동문회, 장학금 전달

동문·재학생 함께 교제하며 모교 미래 위해 기도

총회성결교신학교 총동문회(회장 김태종 목사) 소속 목회자들이 지난 3월 본교(학장 김순홍 목사)를 방문해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는 총동문회 총무로 섬기고 있는 송종삼 목사(나누리교회)가 설교를 통해 수확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되어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예배에는 총동문회 총무로 섬기고 있는 송종삼 목사(나누리교회)가 설교를 통해 수확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되어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모임에 대하여 알려왔다. 2026년 6월 29일 오전 11시 고메스퀘어 신대방점에서 진행되며, 많은 이들이 함께 하여 학교를 위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총회성결교신학교 제공]

성결대학교, ‘2026 직무박람회’ 개최

현직자 상담부터 청년고용정책까지 한자리에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 장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라휘문)는 지난 18일 학생정보관 1층 실내의 공간에서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성결대학교 직무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직무박람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과 진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직자와의 상담을 통해 직무별 실무 역량과 취업 준비 방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참여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행사는 정책홍보존, 직무존, 이벤트존 등 총 19개 부스로 운영됐다. 직무존에서는 회계·재무, 금융, 공공기관, 연구·설계, 광고·홍보·마케팅, SW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현직자가 참여해 학생들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 현장 중심의 직무 정보를 제공했다.

이벤트존에서는 1분 캐리커처, 인생네컷, 학생상담센터 연계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홍보존에서는 국민취

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포터즈 프로그램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직무박람회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상담, 취업 프로그램, 청년고용정책 연계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은혜로 세워지는 두곡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헌당 및 임직예배



담임목사 이종섭

| 모시는 말씀 |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두곡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헌당 및 임직예배를 드리오니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 이종섭 목사와 성도 함께 드림 —

일시

2026. 6. 7(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두곡교회 3층 예배실

* 이 광고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 장로장립






| 권사






| 안수집사




예수교 **두곡교회**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계촌2길 27-5(두곡리 234-24)
 대한성결교회 ☎ 041-333-9192